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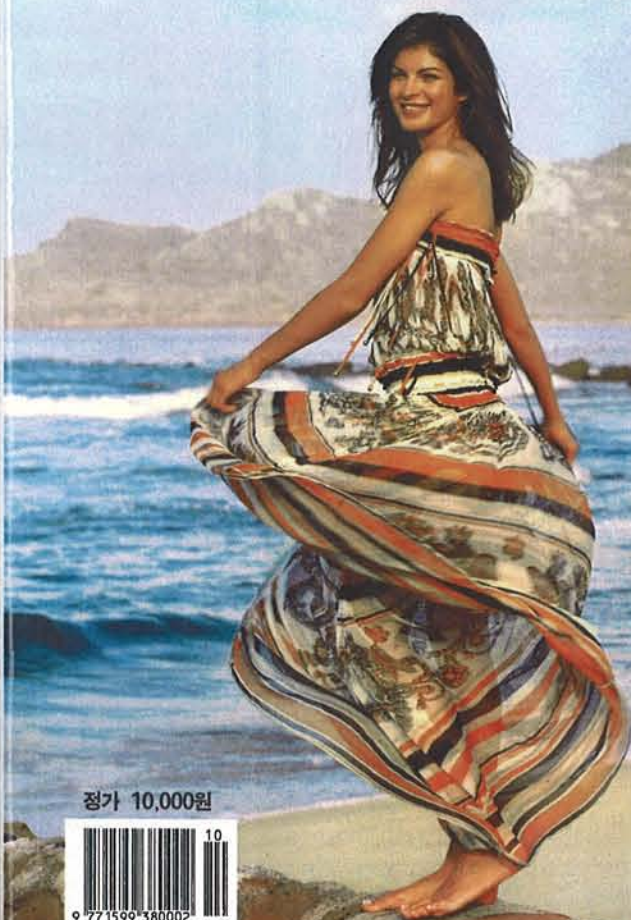
# TRAVEL + LEISURE

THE ART & CULTURE ISSUE

OCTOBER 2008 KOREA

## 24 emerging destinations

\* 새롭게 떠오르는 바닷가 휴양지 24곳



Play with Shapes  
시크한 가을 룩의  
내추럴 무드

**PUERTO RICO**

고독한 즐거움을 찾아서

**WIEN**

자연을 품에 안은 아르누보의 도시

**BRUSSELS**

고미술품 거리를 걷다

정가 10,000원



'살아 있는 지붕'으로 담긴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의 외관

## DESIGN: RENZO PIANO GOES GREEN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공원 안에 이제 막 문을 연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California Academy of Sciences, 55 Music Concourse Dr.: 1-415/379-8000; calacademy.org)는 프리즈커 건축상 수상자인 렌초 피아노의 혁신적인 설계로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진수를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향토 식물로 이루어진 '살아 있는 지붕(living roof)'은 건물에 천연 단열 효과를 제공하고 매년 7백50만 리터의 빗물을 저장한다. 지붕 위에서 굽어치는 일곱 개의 돔 중에서 가장 큰 것은 27미터짜리 두 개다. 하나에는 세계 최대의 디지털 천문관이 들어서 있으며, 이 천문관은 나사(NASA)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받아 우주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관람객에게 그대로 보여준다. 다른 돔 아래에는 나비와 박쥐가 사는 수목과 피라니아와 전기뱀장어 등 아마존에 사는 물고기로 채워진 연못이 있어 방문객들이 유럽 지역과 같은 환경을 탐

험해볼 수 있다. 1989년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백50년 된 원래 건물이 손상되어 렌초 피아노의 새 건물이 들어섰다. 그러나 사랑받던 아프리카 홀(지금은 남아프리카산 펭귄들이 뛰노는 곳)의 신고전주의 양식 석회석 파사드는 유리 와 콘크리트로 지은 세련된 건물 안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건물 안에서 렌초 피아노는 오목하게 장식한 천장과 예전 아쿠아리움의 도리스식 주랑 등 해체된 오리지널 건물의 요소를 재활용해 이 박물관의 과거와 환경 친화적인 미래를 말끔하게 통합했다. 글 R.B.

## THEATER: HOT TICKETS

**LONDON** 프로듀서들은 새로운 연극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해서 할리우드를 파고든다. 최근 영국에서 각색한 작품은 <레인맨>(Apollo Theatre: 12월 20일까지; rainmanonstage.com)이다. 1988년 배리 레빈슨의 히트작을 돈 고든이 각색했다. 영화에서 톰 크루즈가 했던 역은 조시 하트넷이 맡는다. 앨런 에이크번의 1973년도 코미디 3부작 <노르만 정복(The Norman Conquests)>(Old Vic Theatre: 12월 20일까지; oldvictheatre.com)의 리바이벌 작품도 오랜 기다림 끝에 무대에 오른다. 섹스에 관한 뛰어난 소극으로 세 편의 연극이 주말, 같은 집, 다른 방에서 벌어지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서로 다른 독특한 관점을 보여준다.

**NEW YORK** 말을 사랑하는 10대 소년인 열정과 분노에 사로잡혀 버거붓은 체마구간에 들어가 말들의 눈을 멀게 한다. 피터 셰퍼의 1974년작 <에쿠우스>(Broadhurst Theatre: 2009년 2월 22일까지; equusonbroadway.com)는 테아 사록의 연출로 힘 있는 무대를 보여준다. 대니얼 래드클리프가 출연해 관객들에게 그가 해리포터를 뛰어넘는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킬 것이다. 존 오하라가 쓴 야심 차고 매력적인 도박꾼에 대한 이야기 <팰 조이Pal Joey>(Studio 54: 12월



런던에서 뉴욕으로 옮겨간 대니얼 래드클리프. 그는 <에쿠우스>에 출연한다

11일 시작; roundabouttheatre.org)에 극작가 리처드 그린버그가 새로운 해석을 더했다. 뮤지컬계의 명콤비 로저스와 하트가 작곡한 최고의 노래들이 포함된 이 뮤지컬에는 <저지 보이즈>로 토니 상을 받은 크리스천 호프와 여배우 스투카드 채닝이 출연한다. 글 Bill Rosenfield

## ART: Q+A WITH A CURATOR

파리에서 열리는 FIAC(10월 23~26일; fiac.com) 총감독 마르탱 베트노 Martin Bethenod와의 미니 인터뷰. **파리의 미술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가적인 문화유산과 현대 미술이 교차하고, 과거와 현재가 교차한다. 예를 들면 제프 쿤스의 프랑스 첫 전시(12월 14일까지; cha-teauniversailles.fr)는 베르사유궁에서 열린다. **지역적으로 개발되는 부분은?** 파리 동쪽과 북쪽에 있는 구획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오베르빌리에 104번지도 그런 곳인데, 전에는 장의사들의 중심지였던 이곳에 이번 가을 대규모 크리에이티브 공간이 문을 연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예술의 장은 어디일까?** 가장 흥미로운 여행지는 서로 다른 문화의 교차점이다. 두바이는 서양, 중동, 인도가 만나는 곳이고 베를린은 서유럽과 동유럽이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LA가 태평양 지역의 주목할 만한 랑데뷰 장소로 떠오를 것이다. 그곳에서 웨스트코스트와 멕시코가 한국, 중국, 일본과 만난다. 글 Tina Isaac